



大邱直轄市부시장 姜泰潤 씨

◎…大邱직할시 부시장 姜泰潤씨 —.

180만 대구시민의 크나큰 살림을 도맡고 있는 姜부시장이기에도 오늘도 한치의 빈틈이 없다.

날카로운 눈매에 예지(叡智)와 정렬이 넘쳐흐르는 姜부시장은 시민의 福祉 행정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노라고 그의 철학을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지금만큼 노력한 적은 아마 없을겁니다.

대통령각하를 위시해서 보건행정가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건강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 가정도 국가도 건강해 질 것입니다.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발족도 이런 취지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을 돕기 위해 발족된것이 아니겠습니까?」

◎… 姜부시장은 자기자신의 어렸을적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 내가 어렸을 시절만해도 배가 아플때엔 썩물을 마시고 복통을 가라안쳤

뤄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식구를 돌보는것과 같이 말입니다.
셋째, 환자나 의료가관이나 서로간의 입장에서 서로 한집안 식구같이 이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것은
가슴 아픈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

◎... 국민은 정부시책을 믿고 생활해야 하며 특히 불신평조를 없애야 한다
고 강조하는 강부시장은 특히 健協사업은 대구시 나름대로 홍보등을 하겠지만
시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건강을 돌보아야하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이므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 寄協 健協직원들은 바쁜 일 중에서도 할려고 애쓰는 흔적이 엿보여
찬양하고 싶다면서 대구 건협은 기필코 잘 되어 나갈것이며 예산 장비 환경 개
선등의 적극지원을 약속하기도 한다.

◎... 同席한 보건과장 具滋燁씨는 83년도 대구 시정방향을 이렇게 이야
기 한다.

「시민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계획하고 있으며 58만 9천명을 예방접종, 장비보
강, 방역소독을 하며 의료보장제도의 기반정착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을 91개소
에서 110개소로 확대하고 노인건강진료를 900명 새마을지도자 가족에게 27.9
00여명을 시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봉사로서 야간당번제와 취약지역 순회진료를 연 2회 실시 예정으
로 있습니다.

인구증가억제대책도 강력히 추진, 가족계획목표량을 총력추진할 계획입니다」

◎... 姜부시장은 내무부 민방위국장,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현직에 취임했다.

취미로는 정구 축구 골프등 만능 운동선수. 부인 金銀珠여사와의 사이에 5
남매의 다복한 家長.